

연중 제 21 주일

제1독서 : 이사 66, 18-21
제2독서 : 히브 12, 5-7, 11-13
복 음 : 루가 13, 22-30

숲 정 이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견책하십니다”
(히브 12, 6)

강론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

박찬길 신부/사목국장

신문기사의 한 토막입니다.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어느 여고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장기간 입원하였습니다. 하루속히 의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주변사람들이 정성껏 돌보고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학생이 그만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진 일이라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담당의사는 낙태를 종용하는데, 환자의 부모는 가톨릭 신자임을 내세워 절대로 낙태를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생명이니 낳아서 기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결단입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안되겠지요?”라는 질문을 받으시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신자가 예수님께 “신앙인들은 모두 하느님 나라에 들어 가겠지요?”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할까요? “나더러 ‘주님, 주님’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 나라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 간다”(마태 7, 21)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얼마나 큰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구원에 이르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소리

안전 불감증(不感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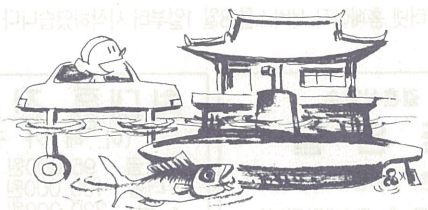
엿그제 가까운 계곡을 찾아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수지에서는 많은 비에 대비하여 물을 방류하고 있었고, 하천에는 붉은 물이 무섭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거쳐 들어간 산 계곡에는 수많은 인과들이 모여서 텐트를 치고 피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라디오에서는 오늘 저녁 비가 60~150mm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아오는 길에도 어린 자녀들과 함께 텐트를 치고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만일 비가 예보대로 온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새벽에 장대과 같은 비가 무섭게 내렸습니다.

현대사회는 통계에 의해서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통계를 불신해서 그런지 라디오에서 나오는 기상 예보는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자기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고 무모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둥과 낙뢰가 치는데 작업을 하고, 돌풍이 부는 날에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리산 계곡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했는데도, 다음 날 바로 그 자리에서 텐트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지도는 지나쳐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지키는 안전 교육은 가정과 직장에서 매일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어린이를 데리고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그런 무모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정에서부터 안전을 위한 교육이 정말 필요한 계절입니다. (태)

숲정이 산책



“수해를 대비하는 21C 주택”

말씀의 향기

좁은 문은 지속적인 관심

박완서

금년장마는 참으로 길고 끔찍했습니다. 일기 예보도 믿을 게 못됐습니다. 장마는 이제 끝나고 곧 무더위가 계속될 거라는 예보가 있고나서 곧장 그 길고도 종잡을 수 없는 집중호우를 동반한 2차 장마가 시작됐으니깐요. 언제 어디에 어느만한 비가 내릴 거라는 걸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무력감과 부끄러움을 우리는 게릴라성 호우라는 신조어로 얼버무리기도 했습니다. 세치 혀의 간사함이라고나 할까요. 혹시 천지개벽 같은 조화로 범람하는 중국의 양자강이 승천하여 우리 나라 하늘에 걸리게 아닌가하는 황당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아직 복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개천이 남아있는데 그 개천이 폭우로 용솨음치는 모습은 TV로 본 지리산 계곡의 범람과 다르지 않게 무시무시 했습니다. 아니지요, 어쩌면 더 두려웠을 겁니다. 지리산만해도 먼 남의 일이요, 이 실개천은 당장 내 삶의 터전과 직결된 내 문제였으니깐요. 떡은 남의 떡이 커보이지만, 근심이나 아픔은 내 것이 비록 손톱 밑의 가시일지라도 남의 치명상보다 더 커 보이는 게 인간의 간사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역시 믿을 건 인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미증유의 천재지변 속에서도 살신 성인의 인간애가 있었고, 119를 비록한 구조대원들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헌신적인 구조활동이 있었고, 즉각 달려와서 아픔을 나누고, 진 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복구작업에 동참한 이웃사랑이 있었으니깐요.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절대적인 안전지대라고 볼수 있는 도시의 고층아파트의 주민이라고 해서 바깥의 수해를 내몰라라 하며 TV나 보다가 편한 잠자리에 드는 것은 아니라는게 화면에서 시시각각으로 올라가는 성금의 액수가 증명해줍니다. 이 익명성의 회사야말로 유명정치인의 이름만 버젓하고 액수는 미상인 금일봉보다 훨씬 값진 것이 아닐런지요. 폭우나 폭풍이 하천과 바다를 밀바닥부터 뒤엎어 청소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논리가 인간사에도 적용돼 상류층의 잠자는 양심과 철석 같은 안일을 뒤흔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재난이 있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풀찌는 더욱 풀찌로 만들 뿐, 결코 풀찌가 첫째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피해도 호텔보다는 야영하는 이들을, 아파트보다는 저지대의 주민을 집중적으로 할퀴고 지나갔습니다. 물론 피해보지 않은 이들이 있어서, 이번 재해도 극복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나눔이 비단 몇푼의 돈에 국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이들과 웬만하게 사는 이들이 조금 더 이롭자고, 조금 더 편하자고 청결하자고, 만들어낸 온갖 개발과, 편의시설과, 방만한 생활방식이 이번 폭우피해를 극대화했다는 걸 잊지말아야 합니다. 편리나 이익 청결도 양보하고 나누는 마음은 물질적 나눔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속적인 관심이지 냄비처럼 경박한 면피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주 가톨릭 신학원 2학기 개강 및 수강자 모집

1. 성서부 : 가. 성서교실 : ① 등록자격 - 성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 졸업자도 재신청 가능 ② 수업일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낮반), 오후 7시~9시(저녁반) ③ 교육내용 - 신학 ④ 개강 - 8월 27일(목) 오전 9시 30분(개강미사) ※ 개강당일 오후 7시 강의 있음 나. 말씀나눔 : ① 등록자격 - 성서교실 졸업자 ② 수업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③ 개강 - 8월 31일(월) 오전 10시 등록 : 8월 27일(목)부터. 접수 및 문의 : 신학원 행정실(255-2677~8) 등록금 : 50,000원
2. 교리부 : ① 교리교육과 - 9월 1일(화) 오전 10시 ② 신앙연수와 - 9월 1일(화) 오후 7시(교리부는 별도의 수강자 모집없음)

전주교구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주교구 홈페이지 주소 <http://user.chollian.net/~yoosep>

결혼상담소
좋은 날
초혼, 재혼, 인연을 맺어드립니다
상담 : 유 춘 주(세라피나)
전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삼성전자 2층
☎ 87-3325, 88-3325

침대공 전시장
(이 레 가 구)
• 싱글 : 95,000원
• 더블 : 130,000원 부터
• 쿼 : 220,000원
전주점 (0652) 211-8716~7
익산점 (0653) 843-2676
군산점 (0654) 465-2841
대표/김미숙(안젤라)

대우산업개발
조립식, 일반건축, 철구조물
환경오수정화시설
유 덕 렬(스테파노)
오 화 선(미카엘)
전주환경호텔옆 전북적물협동조합 빌딩 2층
☎ 84-0420, FAX 84-0421

토탈 패션
I M A⁺
영캐주얼, 보세의류 전문 패션몰
김 문 식(베드로)
심 점 순(데레사)
객사뒤 K.F.C 앞
☎ (0652) 231-7853

☞ **궁금해요**

매주 금요일은 금육(禁肉)하는 날이지요. 그런데 직장에 다니다보면 동료들과 술을 한잔 할 때 깜빡 잊고 고기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이 꺼림칙한 게 큰 죄를 진 것만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서에 금육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톨릭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고기를 먹지 말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7일중 단 하루라도 고기를 절약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럼 육류를 먹으면 무조건 죄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요즘에는 생선회가 오히려 비싼데, 금요일에 일부러 비싼 생선들만 골라서 먹는다면 금육의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오랜만에 외식을 할 때나 초대 받았을 때, 그리고 음식점에서 먹을 때는 금요일이라도 고기를 먹어도 좋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오늘이 금요일이니가 차려진 고기음식에 손도 안 댄다면 주인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따라서 외식할 때는 얼마든지 먹고, 자기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고기음식을 만들어 놓았는데, 금요일인 것이 나중에 생각났다면 그냥 드시고, 다음날 금육을 지키시면 됩니다. 음식을 상하게 하거나 버리는 것은 더 큰 죄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육은 가난한 이웃을 위한 희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 **교구·제단체 소식**

1. 레지오단원교육 : 8월 24일(월), 덕진동 성당
2. 교리교사피점 : 8월 29일(토)~30일(주일), 나바위 피점의 집
3. 혼인강좌 : 8월 30일(주일), 오전 9시 30분, 가톨릭센터
4. 오수성당 이동목욕차량 축성식 : 8월 30일(주일) 오전 11시 30분
5. 예비신학생 9월 성지순례 : 장소-충북 배론성지, 대상-예·신 모임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 신청-8월 31일까지 교구청 성소국(선착순 50명) T. (0652) 285-0041, FAX. 284-0041
6. 장상원 신부 주소변경 : (우) 701-899 대구시 동구 검사동 사서함 304-101호, 광성대 성당
7. 순창성당 전화국번 변경 : 53국은 653국으로, 52국은 652국으로 바꿉니다.



1998년 성령의 해

나부터 새롭게-입장 바꿔 생각하기

부모님 집에 세 들어 사시는 분이 이사를 가는데 아무도 이사를 오지 않으니 전세금을 빼 줄 도리가 부모님께는 없었다. 법으로 하겠다며 노인들을 조이니 부모님은 사색이 되셨다. 당신들도 지금은 어디서 구제금융이라도 받아야만 생활하실 수 있는 지경인데 어디서 그 많은 전세돈을..... 그러나 아버지는 일자리를 잃고 전세금으로 무엇이라도 해 보려는 그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셨다. 그래서 칠순이 넘으신 분이 돈을 마련하려 백방으로 뛰어나다녔다. 결국 몇 년 전부터 당신의 장례비용으로 쓰고자 아무도 몰래 모아오셨던 돈과 종친회 회비까지 빌려 - 전세금 전세를 해 드릴 수는 없었지만 - 그분의 안타까움만이라도 면해드리고자 하셨다. 이런 일들이 지금은 남의 일이 아니다. 여기 저기서 시시각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바로 이런 어려운 때에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럴지 없겠지만, 나만을 내 입장만을 고집하여 돈을 빼 달라고 조르고, 전세가 빠져야만 줄 수 있다며 나는 몰라라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대회년. 구제금융을 받아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암담한 현실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는 너를 먼저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네 입장에서 생각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를 할 수 있다. 아버지는 그 사람의 어려운 입장을 생각하고, 그 사람은 주인 할아버지의 어려운 입장을 생각해 줄 때, 그 안에는 이 분이 나를 위하여 이토록 애쓰셨다는,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 노력했다는 따뜻한 인정과 호רות함이 꽃필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탄생 2000주년을 경축하고자 하는 우리는 단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기까지 우리 마음을 드높여야겠다.

기쁨과 온정의 대가사 2000년 대회는 7월 1일 4개월 8일 남았습니다.

요심이 (130기) 김병오



원평 성당에서 직접 재배한

꿀 배

- 가격 : 특(10kg) 30,000원
 大(10kg) 25,000원
 中(10kg) 20,000원
- 구입문의 : (0658) 43-0880~1
 휴 011-651-4084

LG 에어컨 파격세일

15~26% 할인+6회 무이자
식당용 냉장고 17개월 무이자
냉난방기 상담 환영
백제로 빙상경기장 맞은편
원 승 연(도밍고)
☎ (0652) 241-2000

행복 웨딩 스튜디오

웨딩앨범 제작, 아기·가족사진
드레스, 메이크업
정진우(아모스)
정성이(레아)
☎ (0652) 471-5557, 465-4996
: 교우분들께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극동주유소 사거리 접인아트 맞은편

김제치과의원

송기삼(골롬바노)
김성자(골롬바노)
김제시 요촌동 금만사거리
☎ (0658) 44-2875~6
FAX (0658) 44-2876

김제원광한의원

한의학박사 이순호(루치아노)
정연숙(루치아노)
김제시 요촌동 김제초등학교앞
☎ (0658) 547-3260
546-3200

동보한의원 동부약국

최첨단 의료시설 및 주차장 완비
원장 김경환(파비아노)
약사 범순복(안나)
익산시 영동동 천주교회 옆
☎ 한의원 (0653) 52-4666
약국 (0653) 841-7217

8월 23일부터 전주시내의 두자리수 전화국번앞에 2자가 붙습니다.

■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너 윈 226-3487 사목회장 심 성 택

◎ 주님! 조국에 평화와 용기의 은총을 주소서.

1. 모임 : ① 전례부, 테니스회 - 공중미사 후
② 청년회 - 저녁미사 후
③ 동그라미 불령회 - 24일(월) 후 8시
④ 성심 부녀회 - 26일(수) 전 10시
2. 사랑의 헌금주일 : 사랑의 다리, 성소 후원금 납부의 날임.
3. 예비신자 교리 : 매주 주일, 수요일, 목요일에 있음.
4. 성서교실 안내 :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 있음.
5. 성서와 교리교실 : 매주 수요일 후 8시 강의, 수강 접수중임
6. 참회예절 미사 : 26일(수) 저녁미사 중에 있음
7. 가정방문 : 26일(수), 27일(목) - 삼천 제2구역
8. 구역미사 : 28일(금) 후 8시 - 삼천 제2구역
9. 초 · 중 · 고 교리교사 피집 : 29일(토)~30일(일), 나바위 피정의 집
10. 사랑의 헌금할 설치 : 각종 이웃돕기, 헌금, 봉헌 이용바람
11. 청소년 상담실 운영준비 : 상담원 봉사 신청받고 있음.
12. 금주 전례 : 해설 - 박종구, 독서 - 박 회(콘스탄티노) 부부
봉헌 - 김상진(바오로) 가정
13. 차주 전례 : 해설 - 문승욱, 독서 - 김희주(스테파노) 부부
봉헌 - 안미화(모리카)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1,390,070원 □ 교무금 : 1,912,000원

우 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서 석 구
보좌신부 226-0443 수 너 윈 223-0715 보좌신부 김 영 근
F A X 226-1044 사목회장 박 영 근

◎ 성전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 : 누계 - 884,410단

1. 금주 모임 : 승리의 여왕Cu. - 전 9시
2. 예비신자 환영식 : 9월 1일(화) 후 8시
3. 보좌신부님 휴가 : 24일(월)~28일(금)
4. 금주 미사시간 : 월 - 전 6시, 화, 목 - 후 7시 30분, 금 - 전 10시
* 화~금 - 새벽미사 없음
5. 미납된 신축헌금(공사비 미지불)은 속히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지난주 신축헌금 봉헌액 : 1,800,000원(5세대)
7. 전입가정 환영 : 박종철(바오로) - 가정반
8. 차주 : 사목회, 요셉회
9. 금주 전례 : 해설 - 이종표, 독서 - 유재정, 박병남
봉헌 - 김상권, 이귀임 부부
10. 차주 전례 : 해설 - 이인숙, 독서 - 여태구, 정현주
봉헌 - 김용신, 박순자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2,277,810원 □ 교무금 : 1,828,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274-9261 사 무 실 274-9260 주임신부 오 현 택
F A X 274-9260 수 너 윈 274-9262 사목회장 유 춘 웅

◎ 쉬고있는 교우들과 불우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관심바랍니다!

◎ 오늘 : 수재민 돕기 2차헌금

1. 금주 모임 : ① 애명회 - 공식미사 후, 1회의실
② M.F 모임 - 공식미사 후, 야외회
③ 낚시대회 - 전 8시, 성당에서 출발
2. 차주 모임 : ① 청년불령회 - 24일(월) 후 7시, 회원모집중
② 엠마우스회 - 26일(수) 후 7시, 1회의실
③ 성령기도회 - 27일(수) 후 8시, 유아실
④ 등산회 - 29일(토) 후 2시, 성당에서 출발
3. 차주 모임 : 방주회, 청년공동체
4. 환자 봉성체 : 28일(금) 후 1시, 수너님
5. 본당 선교단 조직 : Pr별 선교할 구역 접수 - 사무실
6. 부지헌금 2차신청 감사! : 방옥자 10만, 익명 15만 누계 - 714만
7. 전입가정 환영 : ① 김정자(로사) T. 254-0557, 현대A 106/603
② 표근종(아우구스티노) T. 252-9090, 엘지A 102/704
③ 송현주(에스터) T. 74-3302, 동아A 103/503
④ 김영현(유리안나) T. 72-5510, 남양A 201/206
8. 독서 : 금주(새벽) - 김명환, 조진순, 차주 - 강철호, 윤귀철
(공식) - 박태석, 박미애, 차주 - 황삼량, 장남성
9. 미사 안내 : 금주 - 평화의 모후Pr., 차주 - 애덕의 모후Pr.
10. 주차 안내 : 금주 - 사도들의 모후Pr., 차주 - 구세주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 1,635,350원 □ 교무금 : 2,007,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288-3872 사 무 실 287-0441 주임신부 박 기 준
수 너 윈 281-0441 사목회장 최 근 업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1. 모임 : ① 꾸리아, 요셉회, 사라회 - 오늘 공식미사 후
② 대건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오늘 :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다음주 : 수재민을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3. 장고(풍물) 강습 : 오늘 후 3시 30분
4. 본당 신부님 휴가 : 25일(화)~28일(금) * 미사 없음
5. 전입가정 환영 : 김경아(리오바), 최영석(레오)
6. 금주 전례 : 해설 - 신영애, 독서 - 오현주, 이형수
7. 차주 전례 : 해설 - 황성욱, 독서 - 강정호, 김영혜
8. 청소봉사 : 1, 2구역과 6구역

□ 지난주 봉헌금 : 1,238,500원 □ 교무금 : 1,065,0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F A X 221-9842 수 너 윈 225-3675 사목회장 서 동 호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 성전신축헌금 십린금을 서둘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주 모임 : 성모회, 상지원 봉사 - 낮미사 후
2. 예비신자 교리 : 성탄반 - 26일(수), 27일(목) 후 8시
3. 성가연습 : 28일(금) 후 8시
4. 차주 모임 : 구역(반)장 회의 - 낮미사 후
5. 견진교리 : 매주 금요일(후 8시)교리와 집중 교리 1코스 또는 2코스
중 하나를 필히 이수하시기 바람.
① 1코스 - 후 7시 30분~10시 30분
② 2코스 - 전 9시~후 5시 * 사무실에 접수 바람.
6. 청소년 봉사 : 29일(토) - 능하신 정녀Pr.
7. 폐품 정리 : 29일(토) - 평화의 모후Pr.
8. 화단정리 : 29일(토) - 정의의 모후Pr.
9. 금주 전례 : 새벽 - 유희정, 낮 - 홍경의, 저녁 - 정인자
10. 차주 전례 : 새벽 - 권순욱, 낮 - 이영순, 저녁 - 이영숙
* 폐지수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바람.

□ 지난주 봉헌금 : 856,600원 □ 교무금 : 680,000원

□ 지난주 신축헌금 : 1,580,000원

호지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현
수 너 윈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임 해 건

◎ 오늘 : 수재민을 위한 2차헌금 있음

◎ 쉬고있는 교우들과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금주 모임 : ① 복음화추진위원회 - 23일(일) 공식미사 후
② 꾸리아 - 26일(수) 전 10시
2. 차주 모임 : ① 전례해설단모임 - 30일(일) 10시미사 후
② 구역봉사자모임 - 9월 2일(수) 전 10시 30분
③ 사목회 - 9월 4일(금) 후 8시
④ 성모기사회 - 9월 5일(토) 전 10시
3. 교사피집 : 29일(토)~30일(일), 나바위 피정의 집
4. 유아 세례 : 29일(토) 후 3시, 사무실에 신청바람
5. 병자 봉성체 : 9월 2일(수) 후 1시 30분
6. 호자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중고생 어려운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사제연수회(3차) : 9월 1일(화)~3일(목), 나바위 피정의 집
* 많은 기도 바랍니다.
* 감사드립니다.
8. 이웃사랑 기금 : 9월~16일까지 310,000원
* 감사드립니다.
9.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茶)봉사 : 세경A 구역
10. 본당의 모든 기물을 아껴쓰고 주변을 깨끗이 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 1,111,860원 □ 교무금 : 827,000원

“쉬고 있는 교우들께 숲정이를 전달합니다!”